

미국비자 면제 “5대 조건 충족해야”

미국 비자가 여행자의 5대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MCHAM과 공동으로 11월2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마크 스티릿지(Mark Strege) 주한미국대사관 부총영사를 초청해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크 스티릿지 부총영사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방문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지 않고,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된 운송수단을 통한 미국 출국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시행하는 전자여행 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사전 승

인을 취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90일 이상 미국에 머물 경우, 학업·취업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의 일반여권으로 여행할 경우, ESTA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국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STA 신청시 통상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혹 <대기> 상태로 결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했다.

<화학저널 2008/11/24>